

학습 목표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다.

생각 열기

❖ 다음 (가)와 (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나)



제이슨 마이클 앨런, <스페이스 오페라극장>

우리는 흔히 결과만 보고 작품을 판단해요.
그런데 작품을 만든 과정까지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1 (가)와 (나)의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2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술 작품의 가치에 순위를 매겨 보세요.

아름다움

창의성

감동

예술가의 노력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깊게 읽고 탐구하기

1. 다음 (가)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인공 지능을 활용한 그림, 사람과 함께하는 합작

2022년 미국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한 그림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에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그림의 예술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일까?

해당 미술 대회는 창작 과정에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승자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면 인공 지능이 그림으로 변환해 주는 기술을 활용하여 미술 대회에 참가하였다.

인공 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은 그저 주어진 대로만 행동하며 어떤 그림이 탄생할지는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람의 창의성과 인공 지능의 꼼꼼한 밑그림이 더해져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인공 지능과 사람 간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미술계에서 예술가와 협력하여 인공 지능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그린 그림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사람들이 인공 지능의 예술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인공 지능이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속, 사람과 인공 지능의 합작은 하나의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청대신문, 2022. 10. 17.



(나)

인공 지능을 활용한 그림,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

2022년 미국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예술 부문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이 1위를 차지하였다. 과연 이 창작물을 온전한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재료나 기교, 양식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표현하는 인간 활동 및 그 작품’이다. 즉 예술은 생명을 가진 자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인공 지능의 그림은 수많은 창작물과 기법을 학습하여 재조합한 것이다. 이는 기존 작가들의 창작물을 모방하고 변형한 것이기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가 예술 작품을 판단할 때는 작품의 단면만 보고 평가하지 않고, 작품의 이야기나 작가의 가치관 등과 연관 지어 평가한다. 하지만 인공 지능 창작물은 작품의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작가의 가치관을 설명하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공 지능 작품에 담긴 이야기 또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끌어온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에서 베껴 온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 사람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있지만, 인공 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은 원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얹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주체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저작권의 행방이 모호한 작품을 예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예술은 사람만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분야라고 생각한다.

청대신문, 2022. 10. 17.



- ▶ 읽기를 읽으며 핵심 낱말에 ○로 표시하고,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 보아요.
- ▶ 찾은 핵심 낱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번 시간에 배울 탐구 질문을 만들어 보아요.

1 (가)와 (나)의 글쓴이가 인공 지능 그림을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써 보세요.

(가)	
(나)	

2 (가)와 (나)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의견과 근거를 각각 써 보세요.

	(가)	(나)
의견		
근거		

3 (가)와 (나) 중 더 공감하는 글에 ✓로 표시해 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가) ☐	(나) ☐
이유	글을 읽을 때 “나는 글쓴이의 생각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글 속 근거를 활용해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 의견을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가)와 (나)의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카드를 골라 ○로 표시해 봅시다.

(가)

창의성

기술의 도움

인간다움

저작권

예술성

협력

(나)

저작권

인간다움

기술의 도움

창의성

협력

예술성

3. (가)와 (나)를 비교해 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1 (가)와 (나)는 인공지능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	
(나)	

2 (가)와 (나) 중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글에 ✓로 표시해 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가) ☐	(나) ☐
이유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하며 나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 보는 것이에요. 설득력 있는 글은 이유와 근거가 분명한 글입니다. 글 속에서 어떤 근거가 더 타당한지 찾아보며 판단해 보세요.	

4. (가)와 (나)에서 더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관점을 써 봅시다.

더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관점

예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다.

(가)와 (나)에 빠져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생각해 보세요.

5. (가)와 (나)를 다시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만약 인공 지능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인공 지능과 사람이 함께 작품을 만들면 그건 누구의 작품일까?

나의 질문 1

만약 _____ 라면?

나의 질문 2

만약 _____ 라면?



자기 생각 세우기

✦ **깊게 읽고 탐구하기**의 글에 대한 나의 최종 의견을 글로 써 봅시다.

1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그 이유를 써 보세요.

공부하기 전	공부한 후	이유

2 1에서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이름	생각
나	예 나는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주기 때문이다.

3 예술 작품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과 이유를 써 보세요.

나는 예술 작품을 판단할 때 _____을/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_____때문이다.

4 1 ~ 3에서 정리한 내용과 아래의 조건을 토대로 나만의 글을 써 보세요.

조건

1

인공 지능 작품의 예술성 인정 여부에 대한 나의 입장과 이유 쓰기

2

(가)와 (나)에 제시된 양측 입장(예술로 보는 이유 및 보기 어려운 이유)을 비교하여 쓰기

3

상대방 의견을 고려하여 두 관점을 종합한 나의 최종 생각 쓰기

새로운 질문

6쪽 대질문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는 삶'을 참고해요.

1. 3단원을 공부하며 대질문과 관련하여 생긴 궁금증을 새로운 질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예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선택을 지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나만의 질문

2. 새로운 질문을 만든 까닭을 짚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해 봅시다.

의심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사실들도 치밀하게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 그리고 결국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의심하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은가?

데카르트는 내가 살아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먹고, 달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는 모두 착각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인간은 오로지 의심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 데카르트가 강조하는 '의심'은 냉소나 불신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비판적 질문이자 철학적 탐구이다.

데카르트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은 보통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러한 익숙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끝까지 던진 철학자였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씩 의심해 보았을까?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의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정말 확실한 것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의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와 같은 질문이다. 더 나아가 “내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 중에도 ‘진짜 그럴까?’ 하고 다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데카르트의 삶은 단순히 ‘의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출발점이 된다.

생각해 보기

? 의심하고 질문하는 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인물 정보

생애	국적	프랑스
	출생	1596년 3월 31일
	사망	1650년 2월 11일
	직업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대표 업적 생각과 이성을 바탕으로 근대 철학의 기초를 세우고, 해석 기하학과 좌표계를 만들어 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어요.